

○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환율은 직전영업일 대비 0.80원 오른 1,065.40원으로 마감
------	--------------------------------------

이날 환율은 미 보호무역 우려 속 달러 약세흐름 이어가며 직전영업일 대비 0.80원 오른 1,065.40원으로 거래를 마감하였다. 이날 환율은 다음주 FOMC 금리 결정을 앞두고 관망세에 강보합세로 마감하였다. 오전 중 미국 소매판매 부진등에 달러약세 흐름 이어가며 1,063원대까지 레벨을 낮추었다. 이내 리스크오프 심리에 코스피가 2,470원선까지 하락세를 보이고 수급상으로도 수입업체 결제 물량이 우위를 보이며 1,067.60원까지 상승하였다. 오후 들어 코스피도 2,490원대까지 회복하며 환율은 다시 하락세를 이어가며 1,065.40원에 장을 마감하였다. 한편 이날 마감시점의 원-엔 재정환율은 5.56원 오른 1,004.86원에 거래되었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064.50	1067.70	1063.60	1065.40	1065.8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000.66	1008.35	997.93	1001.62

금일 전망	美 경제지표 호조에 1,060원대 후반으로 레벨을 높여 박스권 이어갈 것으로 전망
-------	---

금일환율은 1,060원대 후반으로 레벨을 높여 박스권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환율은 전영업일 종가 보다 4.60원 오른(스왑포인트 고려) 1,069.05원에 최종호가되었다. 미국 실업보험 청구건수 및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표 등 미 경제 지표 호조에 따라 지난밤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고 금일 서울 환시장에서도 강달러 흐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실업보험청구자수가 4천명 줄어든 22만 6천명,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역의 제조업 지수가 전월의 13.1에서 22.5로 올랐다고 발표했다. 또한 지속되는 미국 무역 전쟁 이슈는 달러약세흐름 보다 리스크오프 심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이는 환율 상승 압력을 주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도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에서 그다지 매수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환시에서 달러화는 5거래일 연속 1,060원대에 머무르며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다. 다음주 FOMC 금리 인상 결정 전까지는 박스권 흐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064.75 ~ 1073.00 원
------------------	---------------------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420.77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4.60원 ↑ ■ 美 다우지수 : 24873.66, +115.54p(+0.47%)
-------	--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77.74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7191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